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이 생활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w Generation Housewives' Etiquette Awareness on their Etiquette Implementation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전공

석사 김지영*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정우

Dept. of Home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Kim, Ji-Young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Lee, Jeong-Woo

<Abstract>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effect of new generation housewives' etiquette awareness on their etiquette implement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search the levels of new generation housewives' etiquette awareness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how the etiquette awareness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vary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variables, and the effect of new generation housewives' etiquette awareness as well as the background variables on their etiquette implement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 level of etiquette awareness was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etiquette implementation. Second, generally, their etiquette awareness didn'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bu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the psychological variables including communication level and humanism/materialism value orientation. Third, new generation housewives' etiquette implementa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by monthly income like etiquette awareness. Meanwhile, as the psychological variables, etiquette implementa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y all psychological variables except sex-role attitude. Fourth, according to result of looking into relative influence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psychological variables, and etiquette awareness about etiquette implementation, etiquette awareness was a significant variable which affects etiquette implementation.

▲ 주요어(Key words) : 생활예절의식(etiquette awareness), 생활예절수행(etiquette implementation), 신세대 주부(new generation housewives)

1. 서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고 불릴 만큼 예(禮)를 숭상하고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급변하

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서구의 문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전통문화 역시 차츰 잊혀지고 그 의미를 잃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 즉 예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

* 주저자 : 김지영(E-mail : from1776@hanmail.net)

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절이 중요한 것은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비록 그 시대나 국가에 따라 형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예절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는 이러한 서양예절의 본질적인 부분은 무시한 채, 단지 효율과 편리라는 명분 하에 예절을 거추장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예절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을 오히려 고리타분하고 변화를 모르는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서양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일부분만으로 잘못 평가하고 수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가 추구하는 이러한 달라진 예절관은 그들이 생각하는 장점보다는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편하고 자유로운 일임과 동시에, 법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질서와 도리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 남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져서, 자신 역시 존중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근래에는 변화의 주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신세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이 문제가 개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문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적 단위이자 모든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일차적 장으로서, 올바른 예절의식을 지니고 예를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주부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도구적·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들이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절이 인격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볼 때, 신세대 주부의 올바른 생활예절의식과 행동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국제 사회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 특히 가정 내 생활예절을 정착시키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과 생활예절수행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과 수행 수준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고, 이들은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후, 배경변인을 비롯한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이 생활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 내 예절문화에 있어 주부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생활예절에 관한 올바른 의

식과 태도를 정립하며 생활예절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신세대 주부의 개념 및 특성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Kertzer, 1983). 첫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구분하는 것처럼 가계계승의 원리로서 세대란 말을 사용하는 경우, 둘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을 함께 이동하는 동시출생집단(cohort)을 의미하는 경우, 셋째, '청소년 세대'나 '대학생 세대'라고 부를 때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넷째, '전후 세대'나 '4.19 세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경우 등이다(한국사회학회, 1990).

이러한 세대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말 중, '신세대'라는 용어 역시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세대 구분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으로서, 이는 기성세대 또는 구세대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9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신세대라 칭할 수 있는 인구집단, 즉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인구는 94년에 8백 45만 여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4천 4백 45만 여명 중 약 1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신세대는 매우 혁신적이며 일상생활 전반에 자유를 요구한다. 획일화·기계화된 것을 싫어하고, 지식, 과학·기술, 오락·스포츠·취미, 문화·예술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또한 개인 지향적이어서 자기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생활터전을 원하며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민감하다. 또 신세대는 생각한 연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행동해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 미래를 낙관하며 여가생활도 중요시한다. 생각·태도·행동이 자유분방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 유익한 것, 편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다. 또한 일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속에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완성시켜가려는 높은 성취감(high performance)도 지니고 있다(김대환, 1989).

위에서 제시한 신세대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의 신세대 주부를 정의하자면, ①전쟁 후에 출생하였으며, ②어렸을 때부터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려왔고, ③출산을 저하와 핵가족화로 인해 소규모 가족에서 사회화되었으며, ④정치·경제·문화 각 부문의 급변을 경험한 세대들 중 기혼인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연령상으로는 35세 이하이고, 자녀의 유무는 관계 없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첫 자녀의 연령이 대체로 12세 미만이며, 역사적 사건 상으로는 '전후세대', '베이비붐세대'와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조은정, 1994).

2. 생활예절의 개념 및 기능

1) 예절의 개념 및 근본정신

예(禮)는 인간이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인간 관계를 원만히 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다(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1987). 또한 예절(禮節)은 예의범절을 줄인 말로, 예의(禮儀)는 사람과 사람교류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갖추어야 할 말투나 몸가짐, 행동 따위를 말하며, 범절(凡節)은 그러한 말투, 몸가짐, 또는 행동의 정해진 꼴을 일컫는다(문상주, 1995). 즉, 예절은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성 사회규약적(慣行性 社會規約的)인 생활규범이며,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성균관, 1993)

이러한 예절에 대한 의미는 오늘날 다소 어의상의 차이가 있어 서양에서의 에티켓(etiquette), 매너(manners)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에티켓은 고도의 규칙이나 예절 등 사회인으로서 거기에 어울리는 감정을 지녀야 한다는 매우 높은 요구도를 의미하는 반면, 매너는 습관이나 몸짓 등 일반적인 법칙을 가리킨다(김희경, 1999). 그러나 에티켓과 매너 모두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하나의 공통된 생활방법으로 정립되어 실천적으로 행해져 온 생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김득중 외 2인, 1991).

예절의 근본 정신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정성스런 태도이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 중에 "비례물시(非禮勿視)하며 비례물청(非禮勿聽)하고, 비례물언(非禮勿言)하며 비례물동(非禮勿動)하라"는 것이 있다. 이는 곧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는 것이다(김대석, 1996). 그 외 <예기(禮記)>에는 '예'란 친한 것과 소원한 것을 정하고, 의심스러운 것을 해결하며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이 예가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위태롭기 때문에 예를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무릇 예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한편, Post는 예절을 "배려와 친절에 바탕을 둔 행동의 규범"이라 정의하며(1997), 예절의 근본정신에 대해 "예절에는 수많은 법칙이 있겠지만 그 근본정신은 이 세상을 생활하기에 좀더 기본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점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프랑스의 철학자 Bergson(1972)은 "예절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있다"라고 하였다(김희경, 1999).

이러한 서양에서의 예절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근본정신에 있어서는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즉,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호감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난처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 특히 여성을 존중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서양의 예절은 자유와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하간의 '예'가 아닌 대등한 인간간의 예의를 중시하며, 그와 더불어 여성존중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이정우 외,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예절의 본질은 원활한 공동생활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을 바로 세우며, 그 바탕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재된 실재와 이를 언어와 행동으로 나타낸 격식이 조화를 이루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이정우·김연화, 1998).

2) 예절의 기능

'예절'의 기능에는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기능이 있다. 수기(修己)란 스스로 사람다움을 지니기 위해 자기를 관리함을 의미하며, 그 본질은 정성스런 마음(誠)이다. 이는 곧 자기 수련의 요령으로 자신을 속임 없이 정직해야 하고 정성스레 예절을 지키며, 홀로 있을 때라도 항상 조심하고 삼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내대자적작용<對內對自的作用>). 치인(治人)은 남과 함께 지내는 대인관계를 의미하며, 자기 내면을 다스리던 정성스런 마음을 타인을 대할 때도 똑같이 활용하여, 타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대외대타적활용<對外對他的活用>). 즉, 예절의 기능은 개인적으로는 내적인 사람다워짐과 자아정체감을 증대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이정우 외, 2001).

공자 역시 예의 중요한 기능이 사회적 조화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즉, "군왕(君王)은 군왕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질서 또는 인간관계는 일방적으로 강요된 규제나 법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명분, 곧 예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여, 질서 있는 사회공동체는 힘이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덕(德)과 예(禮)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전병재, 1989).

또한 공자는 "공경하면서도 예의가 없으면 종잡을 수 없이 난감하고, 조심스럽고 삼가면서도 예의가 없으면 겁쟁이가 되기 쉬우며, 용맹스럽고도 대담하면서 예의가 없으면 문란해지고, 곧고 굳으면서 예의가 없으면 초조해진다(공이무례즉로<恭而無禮則勞>, 신이무례즉수<慎而無禮則蕪>, 용이무례즉란<勇而無禮則亂>, 직이무례즉교<直而無禮則絞>)"라고 언급한 바 있다.

3.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

신세대 주부에 초점을 맞춘 생활예절의식과 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대상을 신세대 주부로 한정하지 않고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생활예절의식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속의 예절들이 실제 본인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 정도를 의미한다(이정우·김

경아, 1997). 예절에 있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예절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내면화시킴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강선영, 2000). 즉, 예절을 습득하여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예절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김희경·정영숙, 1999).

생활예절수행이란 예절생활의 정립을 위하여 실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실천 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이정우·김경아, 1997). 실천이 결여된 예절은 참다운 예(禮)라 할 수 없으며, 예절은 실질적인 표현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절수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절을 습득하여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절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필요하므로, 예절의식과 예절수행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두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예(禮)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절은 습관화된 훈련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숭선수범은 곧 자녀의 예절행동에 모태가 되는데, 특히 이를 전수시키는 주된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예절수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정우·김경아, 1997). 또한 가정은 예절의 기초를 익히고 실천하는 수련의 도장이며,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예를 체질화(구체화)·내면화시키는 곳이고, 이를 가치화·습관화시키는 곳이다. 그 만큼 가정은 예절 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최병호, 1991).

생활예절의식과 수행에 관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생활예절의식이 생활예절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수신예절과 가정의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길 때 실제 생활예절수행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전화·통신예절, 전통예절, 다례에 관한 의식이 전체 예절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기성세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길표(1997)의 연구에서는,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이 수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생활예절의 가치의식과 수행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희규(199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예절의식과 수행이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비교적 건전한 예절의식을 지니고 예절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생활예절 영역의 의식수준과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생활에 대한 관심과 준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절을 개인·가정·사회·국가의 차원으로 나누어 대학생의 예절의식과 수행을 연구한 이행숙(1998)의 연구에서도 개인예절, 가정예절, 사회예절, 국가예절 모두 의식이 높을수록 행동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절의식과 수행간에는 서로 상

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임혜경·임희규(1998)는 사회생활예절 영역의 경우 예절의식·수행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절에 대한 의식점수가 수행점수보다 높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행동은 가치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며 나아가 예절수행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엄문자·류미현(2000)의 연구에서도 생활예절에 대한 수행 수준이 생활예절에 대한 태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김희경(1999) 역시 대학생들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치의식보다 낮다고 하였다. 이는 의식은 있어도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뜻하며, 예절의 완성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예절에 대한 수행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 관해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관련변인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령에 따른 생활예절의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경(1999)의 연구에서는 모(母)의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수신예절 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연령이 높을 때 대인관계예절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절수행의 관련변인을 살펴본 임혜경·임희규(1998)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21세 이상인 집단이 20세 이하인 집단보다 의생활·식생활·수신·사회생활·가족생활·의례생활예절의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도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예절수행정도가 높으며, 특히 일상생활예절, 가정생활예절, 대화예의 수행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학력에 따른 생활예절의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곽정순(1995)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초등학생 자녀일수록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을 비교한 이길표(1997)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몸가짐에 관해 고찰한 차혜연(199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여학생의 예절의식이 높다고 하여, 연구들 간에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학력에 따른 생활예절수행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학력 변인이 예절수행에 부적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을 비교한 이길표(1997)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른 예절행동 수준이 하위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대졸 기성세대 집단에서는 식생활 예절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고졸 기성세대 집단에서는 언어 예절 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마다 그 경향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종교에 따른 예절의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경(1999)의 연구에서는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은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예절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및 태도에 관해 연구한 전상수(1997)는 종교가 있는 고등학생들이 종교가 없는 고등학생보다 일반예절의식에 관한 평균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생활예절수행에 관해, 김희경(1999)은 대학생의 생활예절수행 영역 중 가정의례예절 영역이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중 불교나 무종교 집단이 기독교와 천주교 집단보다 가정의례예절의 수행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상수(1997)의 연구에서도 예절의식과는 반대로 종교가 없는 고등학생들의 예절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예절의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때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예절의 가치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예절의식은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정우·김명나(1993)는 가정의 경제사정이 보통 이상으로 풍족할 때 주부의 예절수행 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강선영(2000) 역시 자신의 가정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여고생일수록 예절수행을 잘한다고 하였다. 또한 광정순(1995)의 연구에서도 생활수준이 높고 부모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의 자녀가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에 비해 생활예절 실천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예절의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표옥자(1996)는 취업모가 비취업모에 비해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예절교육과 아동의 예절실천에 관해 살펴본 박공주(1996)의 연구에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기본예절영역에서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에 따라 그 경향이 상이하였다. 예절수행과 관련하여 이정우·김경아(1997)는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생활예절을 잘 실천한다고 하였으며,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선영(200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직업을 갖고있는 경우 자녀의 예절수행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정순(1996)은 어머니의 취업여부보다는 취업주부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때 자녀의 예절이 잘 지켜진다고 하였다.

2) 심리적 변인

의사소통도에 따른 생활예절의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행숙(1998)의 연구 결과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개인·가정·사회·국가예절의식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우·김경아

(1997)는 의사소통도가 생활예절 가치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생활예절수행에 관해, 어머니와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명나(1999)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도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예절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에서도 사회인구학적·심리적 변인 중 의사소통도가 기혼여성의 생활예절수행에 대해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예절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예절교육은 실천적 가르침을 통해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생활예절수행을 연구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결과, 인본주의/물질주의·집합주의/개인주의 가치성향 중 집합주의 가치성향과 인본주의 가치성향은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생활예절수행 모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이정우·김경아(1997)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가치성향 중 집합주의 가치성향은 생활예절수행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예절수행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해 연구한 이정우·김경아(1999)의 연구에서도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생활예절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 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절의 궁극적 목적인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예절의 실천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역할 태도에 대한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아존중감에 따른 생활예절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역시 찾아볼 수 없었으며, 생활예절수행에 관해서는, 중년기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9)의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바람직한 가치규범인 생활예절을 보다 잘 지키도록 동기화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이정우·김명나(1999) 역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예절수행을 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기관리와 자아정체감을 증대시키는 대내대자적작용(對內對自的作用)이 있는 예절의 기능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하였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과 생활예절수행 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은 배경변인에 따

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생활예절의식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질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심리적 변인에 관한 문항, 생활예절의식에 관한 문항 그리고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신세대주부의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연령, 학력, 종교유무, 월 평균 소득, 취업여부를 포함한 5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심리적 변인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각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중 가족간의 의사소통도는 김경숙(1993), 황경혜(1998)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가족간 대화의 빈도, 방법, 만족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가치지향성은 임정빈(1998)이 재구성한 4가지 가치지향성 중, 인본주의(人本主義)·물질주의(物質主義) 가치지향성을 중심으로 각각 3문항씩,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가족을 비롯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또는 넉넉한 소득에 대한 가치성향을 묻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며, 신뢰도는 각각 .66, .67이다. 신세대주부의 성역할태도는 이윤미(1995)와 김아영(1999)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근대적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50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는 박애선(1993)의 설문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을 알아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63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예절의식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이정우, 1996; 강선영, 2000)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개념정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수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관한 하위영역은 몸가짐, 인사예절, 출입예절, 언어예절, 방문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 그리고 공중생활예절로 나누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생활예절에 관한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예절의식에 대한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이정우, 1996; 강선영, 2000)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개념정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수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예절수행 역시 생활예절의식과 마찬가지로, 몸가짐, 인사·출입·언어·방문·전화·전통·공중생활예절 등의 내용으로 나누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생활예절에 관한 수행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미만의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에 설문지를 고루 배포하여 지역적인 편중이 없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는 2001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회수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설문지를 제외한 168부를 분석하였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신세대주부 5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회수되지 않은 자료와 기재가 미흡한 자료를 제외하고 45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그 중 Cronbach's α 계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정,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의 결과를 보면, 본 연구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하의 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이상의 주부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취업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결혼연령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통계청이 발표한 여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01년 11월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 29.3세, 여자 26.5세였는데, 이는 지난 81년에 비해 남자는 2.9세, 여자는 3.3세가 늘어난 것이다(조선일보, 2001년 11월 23일). 또한 2001년 10월에 발표한 '2000년 가구·주택부문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일반가구 중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43%가 미혼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중앙일보, 2001년 10월 16일).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459)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연령	25-30세	131	28.5
	31-35세	327	71.2
학력	중졸 이하	23	5.0
	고졸(중퇴)	231	50.5
	대졸 이상	203	44.4
종교유무	종교 없음	185	40.7
	종교 있음	270	59.3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176	38.4
	200-300만원 미만	171	37.3
	300-400만원 미만	70	15.3
	400만원 이상	41	9.0
취업여부	전업주부	278	61.1
	취업주부	177	38.9

※변인별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2) 심리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변인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각 심리적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가치지향성 변인 중 물질주의보다는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의사소통도, 성역할 태도, 자아존중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N=459)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도	상	69	18.4	3.87	.67	
	중	295	66.1			
	하	82	15.5			
가치지향성	물질주의	상	54	11.9	2.06	.69
		중	304	66.8		
		하	97	21.3		
	인본주의	상	97	21.4	4.23	.61
		중	300	66.2		
		하	56	12.4		
성역할태도	근대적	46	10.2	3.55	.54	
	중립적	332	73.8			
	전통적	72	16.0			
자아존중감	상	64	14.3	3.35	.54	
	중	330	74.0			
	하	52	11.7			

※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상 : M+SD 이상
- 중 : M-SD~M+SD 미만
- 하 : M-SD 미만

2.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과 수행간의 차이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과 생활예절수행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이들간의 차이를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생활예절의식과 수행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화예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화예절은 의식과 수행 수준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그 외 전체 및 하위영역의 예절의식이 수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세대 주부가 의식에 있어서는 전체 생활예절 영역에 걸쳐 높은 수준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예절수행에 있어서는 영역에 따라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과 수행간의 차이 (N=459)

내용	생활예절의식		생활예절수행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몸가짐	4.20	.68	3.72	.68	13.96***
인사예절	4.25	.59	3.92	.66	12.77***
출입예절	4.58	.62	4.14	.81	12.62***
언어예절	4.38	.64	3.99	.66	12.32***
방문예절	4.33	.63	2.99	.43	43.72***
전화예절	4.33	.63	4.29	.63	1.47
전통예절	4.48	.73	4.00	.75	19.64***
공중생활예절	4.58	.56	4.37	.61	7.76***
전체	4.33	.44	3.91	.43	25.90***

* p<.05, ** p<.01, *** p<.001

3.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는 학력에 따라서 전체 생활예절의식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생활예절의식의 하위영역 중 인사예절, 방문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 주부들의 생활예절의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월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400만원이하의 집단들에 비해 생활예절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예절, 출입예절, 언어예절, 전화예절이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소득이 높은 집단의 주부들이 소득이 낮은 집

단의 주부들에 비해 생활예절의식의 하위영역 중 인사·출입·언어예절·전화예절의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력에 따른 생활예절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하위영역 중 인사예절, 방문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 영역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사예절의 경우에는 중졸이하 집단 주부들의 인사예절의식이 가장 낮고, 고졸 집단 주부들의 의식이 가장 높았으며, 전화예절의 경우 학력이 높은 집단의 주부일수록 전화예절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예절 영역에서는 학력이 높은 집단의 주부일수록 전통예절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주부들이 학력이 낮은 집단의 주부들에 비해 대인관계에 필요한 생활예절의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예절에 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심리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을 심리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을 심리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도, 인본주의·물질주의 가치지향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따라서는 생활예절의식의 일부 영역, 즉 방문예절, 전화예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연하면, 의사소통도와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은 상·중·하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은 상·중 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 집단과 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의사소통도가 높은 집단의 주부가, 그리고 가치지향성 중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주부가 생활예절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치지향성 중 물질주의의 경우에는,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이 낮은 집단의 주부가 생활예절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본주의 가치지향성과 의사소통도에 따른 생활예절의식의 경우, 이들 변인에 따라 생활예절의식의 모든 하위영역, 즉 몸가짐, 인사·출입·언어·방문·전화·전통·공중생활예절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의 경우에는 생활예절의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

			생활예절의식																	
			몸가짐		인사예절		출입예절		언어예절		방문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		공중생활		전체	
변인	구분	빈도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연령	20-30세	131	4.25		4.25		4.57		4.38		4.32		4.37		4.46		4.63		4.32	
	31-35세	327	4.18		4.24		4.59		4.38		4.44		4.32		4.48		4.56		4.33	
	t		1.01		.11		-.22		.04		-1.86		.88		-.14		1.08		-.04	
학력	중졸이하	23	3.93		3.98	A	4.35		4.17		4.39		4.00	A	4.76	B	4.65		4.24	
	고졸	231	4.25		4.29	B	4.63		4.40		4.48		4.38	B	4.53	AB	4.59		4.37	
	대졸이상	203	4.17		4.21	AB	4.55		4.38		4.32		4.31	B	4.39	A	4.57		4.28	
	F		2.65		3.46*		2.84		1.34		3.62*		4.09*		3.81*		.29		2.35	
종교	종교 없음	185	4.18		4.22		4.56		4.37		4.36		4.31		4.40		4.52		4.30	
	기독교	128	4.21		4.30		4.62		4.39		4.42		4.35		4.57		4.60		4.35	
	불교	91	4.19		4.23		4.61		4.36		4.43		4.34		4.49		4.66		4.34	
	천주교	46	4.20		4.27		4.54		4.43		4.51		4.40		4.43		4.61		4.36	
	F		.28		.34		.28		.13		.73		.32		1.66		1.53		.48	
소득	200만원미만	176	4.11		4.15	A	4.52	A	4.28	A	4.36		4.25	A	4.40		4.54		4.25	A
	200-300만원	171	4.23		4.25	A	4.62	AB	4.41	AB	4.44		4.33	AB	4.52		4.59		4.34	A
	300-400만원	70	4.22		4.31	AB	4.54	A	4.44	AB	4.33		4.46	B	4.47		4.56		4.35	A
	400만원이상	41	4.36		4.46	B	4.80	B	4.56	B	4.59		4.48	B	4.63		4.73		4.51	B
	F		1.76		3.70*		2.76*		2.96*		1.97		2.72*		1.44		1.39		3.98**	
취업여부	전업주부	278	4.19		4.25		4.60		4.37		4.45		4.35		4.51		4.59		4.34	
	취업주부	177	4.20		4.25		4.55		4.40		4.34		4.30		4.41		4.55		4.30	
	t		-.02		.00		.82		-.58		1.95		.85		1.42		.74		.80	

* p<.05, ** p<.01, ***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식의 모든 영역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생활예절의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치지향성 중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에 따라서는 생활예절의식의 하위영역 중 몸가짐, 인사예절, 출입예절, 전화예절, 언어예절, 방문예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본주의 가치지향성과 의사소통도와 달리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이 낮은 집단의 주부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주부에 비해 생활예절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행숙(1998)은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개인·가정·사회·국가예절의식 모두가 높다고 하였으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우·김경아(1997)는 인본주의/물질주의·집합주의/개인주의 가치지향성 중 집합주의 가치성향과 인본주의 가치성향이 생활예절 가치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앞의 분석결과와는 이러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구성원간에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의 주부, 또한 가족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가치를 부

여하지 않는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이 그렇지 않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4.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은 생활예절의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단지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미만의 집단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 집단과 400만원 이상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의 주부들이 생활예절수행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우·김경아(1997)는 월평균 소득이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강선영(2000)도 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여고생일수록

<표 5> 심리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

			생활예절의식																		
			몸가짐		인사예절		출입예절		언어예절		방문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		공중생활		전체		
변인	구분	빈도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의사소통도	하	82	4.05	A	3.97	A	4.37	A	4.17	A	4.28	A	4.15	A	4.31	A	4.52	A	4.13	A	
	중	295	4.21	AB	4.27	B	4.59	B	4.36	B	4.38	A	4.34	B	4.47	AB	4.54	A	4.32	B	
	상	69	4.38	B	4.53	C	4.83	C	4.71	C	4.70	B	4.58	C	4.68	B	4.80	B	4.58	C	
	F		4.66*		18.47***		10.93***		14.18***		10.45***		8.96***		4.67*		6.40**		18.78***		
가치지향성	물질주의	하	54	4.40	B	4.43	B	4.75	B	4.53		4.55		4.54	B	4.58		4.69		4.49	B
		중	304	4.13	A	4.19	A	4.51	A	4.34		4.37		4.27	A	4.44		4.55		4.27	A
		상	97	4.25	AB	4.25	A	4.66	AB	4.36		4.38		4.34	A	4.48		4.53		4.34	A
	F		6.02**		6.56**		5.90**		3.25*		3.21*		7.05**		1.28		2.48		8.44***		
인본주의	하	97	3.89	A	3.92	A	4.27	A	4.04	A	4.18	A	4.10	A	4.04	A	4.29	A	4.03	A	
	중	300	4.21	B	4.24	B	4.60	B	4.11	B	4.39	B	4.31	B	4.48	B	4.58	B	4.33	B	
	상	56	4.34	B	4.47	C	4.74	B	4.50	B	4.59	C	4.56	C	4.73	C	4.74	C	4.50	C	
F		7.89***		16.76***		10.84***		10.35***		8.52***		10.21***		17.40***		11.94***		21.17***			
성역할태도	전통적	46	4.28		4.36		4.60		4.30		4.46		4.35		4.51		4.58		4.39		
	중립적	332	4.20		4.23		4.56		4.41		4.39		4.34		4.47		4.58		4.32		
	근대적	72	4.06		4.20		4.67		4.24		4.45		4.30		4.40		4.59		4.26		
	F		1.37		1.68		.74		2.15		.52		.09		.34		.01		1.21		
자아존중감	하	64	4.12		4.16		4.58		4.28		4.22	A	4.22	A	4.53		4.59		4.23		
	중	330	4.21		4.23		4.56		4.39		4.41	AB	4.31	A	4.43		4.57		4.32		
	상	52	4.28		4.38		4.70		4.45		4.52	B	4.53	B	4.67		4.65		4.42		
	F		.84		2.19		1.44		1.03		3.39*		4.20*		3.02		.52		2.54		

* p<.05, ** p<.01, ***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예절수행을 잘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위의 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학력에 따라 생활예절수행의 하위영역 중 언어예절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주부일수록 언어예절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을 심리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을 심리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역할 태도를 제외한 모든 변인, 즉 의사소통도, 자아존중감, 인본주의·물질주의 가치지향성에 따라 생활예절수행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도, 인본주의 가치지향성, 자아존중감은 상·중·하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은 상·중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들 집단과 하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사소통도의 경우 의사소통도가 높은 집단의 주부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주부에 비해

생활예절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어머니의 경우,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예절수행이 높다고 한 이정우·김명나(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하위영역 중에는 방문예절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의사소통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지향성의 경우,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주부는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주부는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며,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하는 예절의 근본정신에서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에 따라서는 전화예절, 인사예절, 언어예절, 공중생활예절, 출입예절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에 따라서는 방문예절 수행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차이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예절의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치지향성 중 인본주의 가치지향성이 생활예절수행에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주부가 생활예절수행도 높은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

			생활예절수행																	
			몸가짐		인사예절		출입예절		언어예절		방문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		공중생활		전체	
변인	구분	빈도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연령	20-30세	131	3.73		3.92		4.15		3.95		2.98		4.33		3.93		4.30		3.91	
	31-35세	327	3.72		3.92		4.13		4.00		2.99		4.27		4.03		4.39		3.91	
	t		.11		.05		.29		-.70		-.27		.91		-1.2		-1.4		.16	
학력	중졸이하	23	3.43		3.73		4.05		3.67	A	2.93		4.25		4.18		4.54		3.79	
	고졸	231	3.75		3.97		4.09		3.95	B	3.02		4.30		4.06		4.40		3.93	
	대졸이상	203	3.73		3.88		4.19		4.06	B	2.96		4.28		3.90		4.30		3.89	
	F		2.20		1.88		.99		4.33*		1.09		.15		2.89		2.35		1.34	
종교	종교 없음	185	3.68		3.89		4.09		3.94		3.00		4.25		3.93		4.38		3.88	
	기독교	128	3.78		3.91		4.11		4.03		3.02		4.32		4.05		4.35		3.94	
	불교	91	3.75		3.98		4.22		3.98		2.95		4.31		4.05		4.36		3.94	
	천주교	46	3.68		4.00		4.26		4.10		2.94		4.40		4.30		4.38		3.91	
	F		.48		.45		1.16		.81		.57		.55		.90		.25		.61	
소득	200만원미만	176	3.61	A	3.84	A	4.02	A	3.86	A	2.99		4.16	A	3.97		4.31	A	3.82	A
	200-300만원	171	3.73	A	3.94	A	4.18	A	4.02	A	2.99		4.30	AB	4.00		4.39	A	3.93	A
	300-400만원	70	3.85	A	3.90	A	4.09	A	4.03	A	2.95		4.40	B	3.94		4.30	A	3.91	A
	400만원이상	41	3.94	B	4.23	B	4.54	B	4.35	B	3.05		4.60	C	4.21		4.61	B	4.16	B
	F		3.93**		4.04**		4.83**		6.95***		.443		6.50***		1.18		3.14*		7.03***	
취업여부	전업주부	278	3.70		3.95		4.17		4.01		3.01		4.30		4.03		4.41		3.92	
	취업주부	177	3.76		3.89		4.09		3.97		2.95		4.29		3.95		4.32		3.90	
	t		-.90		.94		1.15		.56		1.57		.18		1.13		1.47		.69	

* p<.05, ** p<.01, ***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중년기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수행정도가 높다고 한 이정우·김경아(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따라 언어예절, 공중생활예절, 출입예절, 몸가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역할 태도에 따라서는 생활예절수행의 하위영역 중 전통예절과 방문예절수행만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의 주부가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집단의 주부에 비해 전통예절 및 방문예절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에 대해 고정된 성역할관을 지니고 있는 집단의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에 비해 한복을 입을 때 격식에 갖추어 입거나 평상시 공수(拱手) 하는 것과 같이 예로부터 이어오는 전통예절을 잘 지키며, 또한 다른 사람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하는 예를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및 생활예절의식의 영향력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및 생활예절의식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총 3단계에 걸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제 1단계는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며, 설명력은 5%이다. 분석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생활예절수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평균 가계소득($\beta=.21$)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은 가정의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beta=-.11$)은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나, 소득과는 달리 생활예절수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학력이 높은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수행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수행에 관해 연구한 이정우·김경아(1997)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 생활예절수행이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전공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기본적인 인성수양과정이라 할 수 있는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는 다소 소홀한 때문으로 사료된다.

2단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32%로 나타났는데,

<표 7> 심리적 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

			생활예절수행																		
			몸가짐		인사예절		출입예절		언어예절		방문예절		전화예절		전통예절		공중생활		전체		
변인	구분	빈도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M	D	
의사 소통도	하	82	3.40	A	3.55	A	3.67	A	3.48	A	2.94		3.93	A	3.77	A	4.15	A	3.59	A	
	중	295	3.73	B	3.94	B	4.17	B	4.03	B	2.99		4.31	B	4.01	B	4.36	B	3.92	B	
	상	69	4.07	C	4.33	C	4.60	C	4.43	C	2.99		4.70	C	4.22	C	4.70	C	4.26	C	
	F		20.02***		29.57***		28.04***		49.27***		.524		29.06***		4.558**		16.88***		53.46***		
가치 지향성	물질 주의	하	97	3.85		4.10	B	4.38	B	4.15	B	2.97		4.51	B	4.15		4.56	B	4.06	B
		중	304	3.69		3.88	A	4.06	A	3.96	AB	3.01		4.25	A	3.94		4.32	A	3.87	A
		상	54	3.67		3.85	A	4.17	AB	3.84	A	2.88		4.16	A	4.03		4.30	A	3.84	A
	F		2.22		4.66*		5.82**		4.32*		2.05		7.88***		2.87		6.40**		7.65**		
인본 주의	하	56	3.40	A	3.55	A	3.78	A	3.60	A	2.94		4.03	A	3.67	A	3.97	A	3.60	A	
	중	300	3.74	B	3.93	B	4.12	B	3.99	B	2.99		4.25	B	4.00	B	4.36	B	3.91	B	
	상	97	3.87	B	4.16	C	4.42	C	4.22	C	2.96		4.60	C	4.19	B	4.64	C	4.10	C	
F		8.85***		16.33***		11.64***		16.69***		.48		18.68***		8.83***		23.75***		24.21***			
성역할 태도	전통적	72	3.72		4.06		4.11		3.90		3.08	B	4.27		4.19	B	4.34		3.93		
	중립적	332	3.73		3.90		4.11		4.00		2.99	AB	4.27		4.00	B	4.36		3.90		
	근대적	46	3.70		3.86		4.36		4.05		2.86	A	4.50		3.74	A	4.52		3.93		
	F		.04		2.05		1.91		.89		3.85*		2.68		5.01**		1.58		.18		
자아 존중감	하	52	3.50	A	3.76		3.92	A	3.60	A	2.93		4.06	A	3.89		4.18	A	3.69	A	
	중	330	3.74	B	3.93		4.12	A	4.00	B	2.99		4.29	B	4.00		4.36	A	3.92	B	
	상	64	3.78	B	4.04		4.40	B	4.29	C	2.94		4.52	C	4.03		4.61	B	4.05	C	
	F		3.16*		2.67		5.14**		17.07***		.73		7.71**		.57		7.79***		10.38***		

* p<.05, ** p<.01, ***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이는 1단계에 비해 27%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의사소통도($\beta = .41$), 가치지향성 중 인본주의 가치지향성($\beta = .19$), 성역할 태도($\beta = -.14$)가 생활예절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의사소통과 인본주의 가치성향은 생활예절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가족구성원간에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가정의 주부일수록, 그리고 가족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인본주의 가치성향을 지닌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역할 태도는 생활예절수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의 역할에 대해 고정된 관념을 지니지 않은 신세대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수행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즉, 가사나 육아에 관한 일이나 사회 활동 등에 관한 일에 남녀가 똑같은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수행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3단계는 독립변인에 생활예절의식을 추가하여 분석한

것이다.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설명력은 60%로 나타났는데, 이는 2단계의 설명력에 비해 28%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생활예절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의사소통도($\beta = .28$) 및 생활예절의식의 하위영역 중 전통예절($\beta = .18$), 공중생활예절($\beta = .15$), 전화예절($\beta = .13$), 인사예절($\beta = .13$), 언어예절($\beta = .09$)의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결과로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그리고 생활예절의식 모두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경우 배경변인에 비해 생활예절의식 변인이 생활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혼여성의 경우 생활예절의식이 생활예절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수신예절과 가정의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길 때 실제 생활예절수행정도가 높아진다고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예절을 습득하여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8>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및 생활예절의식의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 령	-.01	-.02	-.05	-.05	-.03	-.03		
	학 령	-.09	-.11*	-.04	-.05	.00	.00		
	종교유무	.05	.06	.02	.02	-.00	-.00		
	수 입	.09	.21***	.03	.07	.00	.01		
	취업여부	-.04	-.05	.05	.06	.04	.04		
심리적 변인	의사소통도			.27	.41***	.18	.28***		
	가치 지향 < 물질주의			-.03	-.05	-.02	-.04		
	인본주의			.14	.19***	.03	.04		
	성역할태도			-.11	-.14**	-.07	-.08		
	자아존중감			-.00	-.00	.02	.03		
생활예절 의식	몸 가 짐					.04	.06		
	인 사 예 절					.10	.13***		
	출 입 예 절					.05	.07		
	언 어 예 절					.06	.09*		
	방 문 예 절					.01	.01		
	전 화 예 절					.09	.13**		
	전 통 예 절					.11	.18***		
	공중생활예절					.12	.15***		
상수		3.95		2.82		.79			
F		3.68**		17.61***		30.23***			
R ²		.05		.32		.60			
R ² 증가량		.05		.27		.28			
D-W 계수						2.03			

* p<.05, ** p<.01, *** p<.001

D-W 계수: Durbin-Watson 계수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과 수행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생활예절의식 수준이 수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활예절수행이 의식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서구 문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신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예절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며, 가족간에도 예절을 지켜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시대가 변화할수록 이러한 현상이 점차 증대해짐을 고래해 볼 때, 각 가정에서만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예절수행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의 신세대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적 변인에 따른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서 물질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집단의 주부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 수준이 낮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은, 비록 신세대 주부들이 물질주의보다는 인본주의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주부의 이러한 가치의식과는 상관없이 소득은 실제 생활하는데 있어, 또한 생활예절에 대한 의식을 정립하고 실천함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풍요로움은 합리적인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적이고 지나친 물질주의의 추구는 오히려 예절의식 및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성역할 태도는 생활예절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닌 신세대 주부일수록 생활예절수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부 신세대 주부들이 생활예절을 잘 지키는 것이 성역할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잘못 생각한데서 온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예절의 본질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 있으며, 예절은 남녀노소·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신세대 주부의 예절 관념의 재정립과 이에 따른 올바른 생활예절수행이 요구된다.

넷째,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수행에 대한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심리적 변인, 생활예절의식 중 특히 생활예절의식이 생활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생활예절수행수준이 생활예절의식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식과 수행간에는

유익한 관계가 있으며, 신세대 주부의 예절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절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절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절에 대한 올바른 의식의 정립과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예절의식과 수행 수준의 향상을 위한 장려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 관한 보다 나은 후속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비롯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의 주부, 그리고 다른 연령대의 주부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것이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 역시 대부분이 예절의식과 수행 그 자체에 관해서 연구하는데 그쳐, 예절과 가정·사회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관련시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생활예절에 관해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세대 주부의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정우의 6인(1996), 그리고 강선영(2000)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각 문항들을 선별·수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에 따라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의 하위 영역의 구분이 너무나 상이하여, 선행연구의 예절 의식 및 수행들간의 대등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생활예절의식 및 수행에 관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 접수일 : 2002년 3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9일

【참 고 문 헌】

- 강선영(2000). 실업계 여고생의 예절의식·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득중(1997). 생활예절개론. 교문사.
- _____ (1989). 실천예절개론. 교문사.
- 김아영(1999). 교사와 학생의 성역할 태도 분석과 중등교사의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진(1997). 도덕과 예절에 관한 연구: 한국의 도덕과 예절을 중심으로. 인하대인문연구 26. pp.313-356
- 김옥희·오환일 외(1991). 생활예절. 서울: 양서원.
- 김윤환(1992). 기본생활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1999).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가치의식과 수행.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 남상민(1996). 예절학. 전영사.
- 문선명(2000). 신세대 미혼직장인의 충동구매 억제성향 및 관련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진 외(1997). 우리나라 전례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 예문관
- 박재문(1991). 예절생활. 기본생활습관지도 자료편. 충북: 충북교육연구원.
- 서병숙·양석순(1996). '현대의 가정교육내용'에 관한 척도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pp.65-83
- 서수자(1997). 청소년 예절교육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균관(1993). 청소년을 위한 생활예절. 성균관 출판부.
- 송 북(1989). 예의 이념적 고찰 「현대사회와 예」. 서울: 탐구당
- 송말희(1986). 도시주부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태(1995). 예절과 예절교육. 교육철학 13. pp.161-175
- 엄문자·류미현(2000). 대학생의 생활예절에 대한 지식, 태도와 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3(2). pp.101-111
- 이길표(1991). 가정문화 3; 가정과 예절. 민주문화노총 16. pp.1-27
- _____ (1994).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pp.135-146
- _____ (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 이길표·주영애(1995).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신광출판사
- 이명숙(1995). 도시 전업주부의 가치지향성·가정관리전략, 가정관리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수 역해. 예기(禮記). 서울: 혜원출판사.
- 이정우 외 6인(1996). 생활예론.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_____ 외. 지구촌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양서원.
- _____ ·김경아(1997).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과 생활예절수행. 생활과학연구지 12.
- _____ ·김명나(1999).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초등학교 자녀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지 14. pp.1-15
- _____ ·김연화(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후 태도·행동변화에 대한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6(12).
- 이행숙(1998). 대학생의 예절의식과 예절행동에 관한 연구, 생태학적 환경체계 관점에서.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pp.173-199
- 임희규(1994). 생활예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 pp.211-230
- 장병옥(1997). 취업주부의 부부역할수행, 가정생활기억도 및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례연구위원회(1996). 우리의 생활예절. 성균관.
- 전병재(1989). 현대사회와 예.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편. 탐구당.
- 조은정(1994). 신세대 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신혼주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지영숙(1990).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제1보). 인문과학 20집. 성대 인문과학연구소.
- 최경순(1996). 신세대문화와 전통예절, 생활문화와 예절. 숙명여대 창학 90주년 기념 학술대회,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p.47-59
- 최기호(1995).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전통생활예절의 생활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선(1984). 예절교육 특설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표옥자(1996). 유아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문화재보호재단(1996). (알기 쉽게 풀이한) 우리의 전통예절. 계문사.
- 한국여성교양학회(1991). 생활예절. 양서원.
- 홍승직 역해(1994). 논어(論語). 서울: 고려원.
- 홍용선(1979). 예절의 교육, 예의 본질과 그 사회적 기능.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 Ann R. Free(1969). *Social Usage(2nd ed)*. New York: Appieton-Century-Courts. p.3-4
- Dillard, B. G., Weagley, R. O. & Helmick, S. A.(1992). Satisfaction with Households Production by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7. pp.363-373
- Kalish, R. L.(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California: Cole Publishing Co.
- P. Post(1997). *Emily Post's Etiquette(16th ed)*. Harper Collins Publishers.
- Ryan, J.(1981). Marital Status, Happiness, and Anomi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pp.643-649